

앞으로의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의 안전보건은 기업 스스로 무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때...

이근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최초로 안전분야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17년간 안전인재 배출과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안전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이근오 교수님을 만나,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안전을 진찰 받아 본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1993년 6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는 산업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와 동일시되어 무분별하게 완화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위험기계기구중 프레스, 리프트의 정기검사제도 폐지,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및 직무교육 폐지 등 안전보건분야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염두에둔 조치이지만, 자율에 따르는 책임이 결여된 조치이고,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손실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히려 산업안전은 관심이 떨어지고, 안전인의 위상까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더욱 안전의식 결여를 야기 시켰고, 산업재해의 증가로 나타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완화나 규제폐지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과거 획일적인 건수관리 차원에서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던 사회적 규제인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지원 체제에 대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선임의무가 면제된 50인 미만사업장 중 유해·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한 산업안전활동을 지원하는 안전관리기술지원과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

으로 종합건설 및 유해·위험요인설비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Clean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기술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관리방법을 업종의 위험도와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관리방법, 방문횟수 등을 차등화하고 대행기관의 기술지원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lean 사업 지원의 재원이 년중 하반기에는 고갈되어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과 자금지원 최종확정 결정 후 안전장치 등 설치완료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안전체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지금도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인데, 국내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 거 10여년간 우리나라 안전·보건 체계는 경제논리의 틀 속에서 규제완화 일변도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게 노출된 것도 사실이며 현 시점에서는 그 장·단점을 냉철히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정부 규제에 의존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전·보건 문제가 기업자율에 맡겨 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무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현 수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였고, 많은 안전인을 지도하셨습니다. 다변하는 사회에서 안전인으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잊어서는 안될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 진국이 될수록 안전은 관심의 주 대상이 되고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보건의 권한과 책임이 기업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안전·환경 시스템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안전인도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이때를 대비하여 전문가로서의 공학 및 관리지식을 습득하여 독립된 영역의 기술로서 인정받기 위한 끊임 없는 실력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주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때에도 안전관리자의 존재와 그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

